‘내가 바로 무주농업의 주역이오!’

무주군농민회, 2016년도 풍년기원제 개최

무주군 무풍면사무소 잔디광장에서는 28일 2016년도 풍년기원제가 개최됐다.

무주군농민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 전농도연맹 조상규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풍물놀이와 무주군 농업발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 소형농기구 350점이 전시됐던 농기구 나눔 행사에 함께했다.

무주군 농업인들은 “‘농사 한번 잘 지어보자, 올해도 부지런히 뛰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농사짓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무주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풍년기원제는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6개 읍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다양한 작목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황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시작과 기원이 공존하는 자리라 그런지 힘이 느껴진다”며 “이 자리가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해 농사의 기운을 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반딧불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키워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앞당겨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진구, 공원지킴이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덕진구 생태도시과는 28일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등 휴식공간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인근거리 배치 우선으로 ‘우리 동네 공원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배치가 어려운 공원은 ‘폐지 수거 노인’을 선정해 관리토록 하고 관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노출돼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관내 공원 관리까지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시민에게는 쾌적한 쉼터를 돌려줄 수 있고 인근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동산동 발마사지 봉사단, 대승경로당 방문 봉사

동산동 비누교실 발마사지 봉사단 회원 7명은 관내 대승경로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발마사지 봉사단은 현재 한강아파트, 우신아파트, 대승아파트 경로당에 한달에 한번씩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동산동 정용환 동장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주민자치프로그램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성취업 아카데미 베이비시터 전문가반 개강

덕진구는 28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16 덕진구 여성취업 아카데미’ 베이비시터 전문가반 개강식을 가졌다.

2016 덕진구 여성취업 아카데미는 여성의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등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이다. 상반기에는 베이비시터전문가반과 아동요리지도사반 2개 과정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한식조리사, 방과후 전래놀이 지도자, 정리수납전문가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베이비시터 전문가반은 영유아 건강 및 놀이지도, 학습지도 등 전문적인 육아도우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8주 과정(주 2회)으로 진행한다.

덕진구에서는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 시 교육비(재료비 포함)의 80%(152,000원/1인)를 지원한다.

또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의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정읍시 정우면 직원들, 초강리 유기분씨 찾아 농사일 도와

정읍시 정우면 직원들의 헌신적인 나눔봉사활동이 지역민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정읍시랑 3대 운동’ 중 하나인 ‘나누며 봉사하기’에 앞장서오고 있는 정우면 직원들은 지난 26일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1직원 1가정 멘토링 결연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초강리 유기분(90세)씨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은 텃밭에 감자를 심고 고추밭 고랑 만들기와 비료주기 등 영농일손을 도왔다.

직원들은 이후 기관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초 회룡리 유휴토지 (2,000㎡)에 옥수수를 심는 등 농촌일손돕기와 어려운 이웃 먼저 배려하기 등 봉사활동을 펼쳐감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유휴 토지에 감자와 옥수수, 콩을 재배해 연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정우면은 지난 2월 전 직원 새봄맞이 대청소를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덕진경찰서 격려 방문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28일 덕진경찰서를 방문해 4대악 근절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치안현장 격려방문에 나선 김재원 전북청장은 주요범인검거 유공으로 강력팀 임동원 경위와 김진현 경사, 형사팀 강명구 경위, 팔복파출소 고건우 경사 등 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 꽃다발을 수여했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덕진경찰서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왔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하고 공감치안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진안군의료원, 지역노인 30명 ‘무료 상안검 수술’

진안군의료원은 지난 26일 수술실에서 60세 이상 지역노인들을 위한 무료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번 수술은 눈꺼풀이 처짐으로 인하여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눈썹이 눈을 찔러 눈물이 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와 연계하여 지역노인 30명을 선정하여 수술을 실시했다.

이날 수술에는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간호사 등 20여명의 의료진들이 수술에 참여했다.

이날 수술을 받은 진안읍 김옥순(여 /61)씨는 “속눈썹이 눈을 찔러 눈물이 자주 나고 불편했지만 비싼 수술비로 망설였다”며 “이렇게 밝게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군의료원 관계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눈꺼풀이 처지면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무료시술을 통해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경제통상진흥원-북전주세무서 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북전주세무서와 28일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전담창구 설치, 출장 세무 상담 등 세무 정보 및 관련 인력 제공 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세무서 운영’ 등 연차별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도내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등이다.

홍용웅 원장은 “찾아가는 세무서 운영 등을 통하여 세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순창경찰, ‘착·한·신·고 릴레이 운동’ 펼쳐

순창경찰서는 옥천유치원을 찾아 학부모와 유치원교사 40여명과 함께 아동학대 행동요령과 학대 피해아동의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변에서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는 등 착·한·신·고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아동학대 ‘착한신고 릴레이 운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는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중 하나이다.

최규운 서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첫걸음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입을 강조하고, 앞으로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구인규 기자

완산경찰서, 화산초등학교서 ‘굿바이~ 학교폭력’ 캠페인

완산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28일 화산초등학교를 찾아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굿바이~ 학교폭력’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추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화산초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근황을 묻고 교사와 학생들이 다같이 모여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했다.

완산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효자 3동,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효자3동에서는 28일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 1차 참여자 30명과 4월부터 시작하는 2차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차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2차 4월부터 6월까지 총 40명을 6개 권역으로 각각 나눠 관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벽보와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호관찰소, 호성동 주민친화 사업 간담회 개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8일 호성동주민센터 채득석 동장과 시민계장 등 관계자를 보호관찰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3월부터 양 기관이 추진한 호성동 주민친화 사업을 뒤돌아보며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경 소장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성동주민센터와 지속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96	고창지사 563-6999
010-961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5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1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